

“불교가 좋아서 포교사 됐어요”



◇유구자씨

금융단 불교연합회 운영위원장 김윤하씨,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재무부장 유구자씨,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편집국장 류성현씨, 한국석불선양회 회장 이귀인씨. 이들은 직장적 불자회를 이끌고 있는 주역들로 최근 실시된 제 6회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 합격해 10~11일 한국통신 연수원에서 포교사 연수를 받았다. 아직 3월 3~4일 실시될 2차 연수와 품수식이 남아있긴 하나 이들 비포교사는 자신의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적 불자회 활성화는 물론 군인, 직장인, 어린이·청소년, 재소자 포교의 원력을 세우고 오늘도 바빠 움직이고 있다.



◇김윤하씨



◇유구자씨



◇류성현씨

고교 시절 제주 불비나 불교학생회에 가입하면서 신생활을 시작한 김윤하(49)씨는 한빛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1개 은행불자회가 소속된 금융단 불교연합회의 '마당발'로 통한다. 지난 93년 수협중앙회 불자회를 창립하고 각 은행의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등 은행불자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그는 또 동

산불교대학에 진학해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했고 전국민일일염불회에 가입해 염불을 생활화하고 있다.

“오랫동안 직장불자회에서 활동하다보니 지금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직장불자회가 활성화 될 것인지 알 것 같다”는 김 위원장은 “앞으로 포교사단 직장포교팀에 가입해 직장 불자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윤하씨 염불 생활화하는 금융계 마당발

유구자씨 어린이·청소년포교 열정 남달라

류성현씨 교정회지 편집·죄업 녹이기 앞장

이귀인씨 버려진 석불보호·전방 장병포교

말했다. 39년 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유구자(60)씨는 불자교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창립을 주도했고 지금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불교적 심성을 키워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로 지난해 조계종 포교원장수임으로부터 공

로상을 수상한 그는 앞으로도 어린이 법회 활성화, 초·중·고교사들의 수행정진 활동 지원에 매진할 계획이다. 친척의 권유로 불교에 입문한 그는 법사불교대학에 진학해 불교적 소양을 높이고 매년 사찰수련대회에 참석하는 등 교리공부와 수행에도 열심이다.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회원인 ‘밖’은 소식’의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는

류성현(40)씨, 한순간의 잘못으로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가는 재소자들에게 불법을 홍보하여 그늘지고 증오의 많은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 것이 그의 소원이다 그래서 그는 영등포구치소 직원불자회인 사찰회를 창립하고 지금까지 불우재소자 영치금 전달, 경전 및 합장주 보시 등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불자로서 또한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재소자 포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 그는 틈틈이 양로원, 고아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부처님의 자비심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등산을 좋아한다는 이귀인(49)씨는 산에 석불이 버려져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지난해 한국석불선양회를 창립, 석불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육군 28사단 포병부대 두리장사의 지도법사로 매일 한차례씩

◇최근 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전방에 나서는 직장 불자들이 늘고있다. 사진은 지난 10~11일 한국통신 연수원에서 실시된 포교사 1차 연수 모습.

정기법회를 병행하는 전방사다. 불교를 통해 배운 것을 회향하고 싶다는 그는 앞으로 포교사로서 아무도 찾지 않는 전방 오지부대 신병교육대 법회를 지원해 청년불자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서울구치소, 서울시청, 수원구치소 불자회, 한국석불선양회, BBS교통통신원 등 직장불자 20여명도 포교사로 전방에 나설 예정이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행자부 불자회 신년하례

행자부불자회(회장 하재춘)는 13일 서울 법원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3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연기법’을 주제로 법사주지 오경스님으로부터 설법을 들으며 신심을 다졌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아직 불자회가 미창립된 국무총리실, 통일부 불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하북동 지역모임 정기법회

하이텔 불교동호회(대표이사 이성모) 서울경기지역회는 11일 서울 충정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참선과 사찰예절을 배웠다.

또한 백제모임도 11일 대흥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도정 스님으로부터 설법을 들으며 신심을 키웠다.

공정거래위 임시총회

공정거래위원회 불자회(회장 강평수)는 지난 9일 과천정부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3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총회에서 현 강평수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고 부회장에 최정철씨, 총무에 양중수, 이현숙씨를 각각 선출했다.

신임 강회장은 “올해는 지도법사 위촉, 매주 정기법회와 매일 과천정부청사 합동법회 봉행, 사찰순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불자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불선양회 석불 참배

한국석불선양회(회장 이귀인)는 11일 경기도 여주 남한강 주변에 위치한 제신리 마애석불을 참배, 육박공양물을 올리고 예불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60여명의 회원들은 경제회복과 상생의 삶을 기원했다.

‘자비정신’ 새싹불심 키우겠다

부산교사불자련 박현희 사회장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의 불성을 일깨우는 참 스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일 부산불교회관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결해 열린 특별 법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부산시교사불자련연합회 박현희(59) 수안초등 교장 회장의 각오가 새롭다. 박 회장은 우선 현재 각 지회별로 조직되어 7백여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교사불자회에 더욱 내실을 기한다는 목표로 조직 정비에 착수했다. 박 회장은 “불성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교사불자회 창립의 근본 취지인 만큼 자비, 이타정신을 교육에 잘 접목시키기 위해 출어려 있는 교사들의 역량을 모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한다. 보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6개 교육청, 유치원부, 퇴임자 등 8개 본과의 부회장제를 도입하고 조직 개편에 들어간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참여와 활동은 최대한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

“나부터 철저히 행하면 동료나 후배교사들의 자연스럽게 부처님사상의 위대함에 감화될 것”이라는 박 회장은 철저한 준비와 꼼꼼한 일처리, 뛰어난 조직관리자 정평이 나왔다. 그래서 말이 앞서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에 내실을 기한다는 다짐으로 셋째 화요일 정기법회, 2월 24~25 삼사순례, 전국교사불자회 임원자리에 더욱 내실을 기한다는 목표로 수련 부산 개최, 청소년교화활동, 회보발간, 불우이웃돕기, 상조활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혼돈서 새 질서 찾는 메시지”

환경사회단체 ‘카오스모스시대의...’ 펴내

한국환경간담체인협회와 한국환경사회단체는 최근 ‘카오스모스시대의 생태적 미래 사회 구상’이란 주제의 2000 전국 환경활동가 워크숍 결과보고 자료집을 발간했다. 2000 환경활동가 워크숍은 지난해 6월 불교환경교육원의 주관으로 열린 것.

한국적 환경운동 이념과 과제를 517쪽 분량으로 정리한 이 책자는 △영성, 깨달음, 마음의 생태학 △국토과피의 구조와 환경운동의 대응 △환경교육과 새로운 인간 △환경운동의 이념과 전략 △문화와 환경 등 모두 25가지 주제와 실천방법 등을 놓고 펼쳐진 토론

마당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환경사회단체들의 공동대표이자 불교환경교육원장인 법륜스님은 “환경문제는 혼돈(Chaos)에서 새로운 질서(Cosmos)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메시지”라면서, “따라서 이제는 녹색의 가치, 생태적 가치관, 지속가능한 발전과 마음 만들기, 대안적 생활양식운동, 새로운 문화운동, 여성운동 등 새로운 총체적 비전 즉 생태적 질서와 문화를 만들고 정착시켜야 한다”고 발간동기를 밝혔다. (02)587-8997 김재경 기자

게시판

알림

- ▲알콜·차매 관련 전문상담실 운영=서울시립평안노인복지관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알콜리즘, 차매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및 가족들을 위해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초청해 전문상담실을 운영한다. (02)385-1351
- ▲국립의료원 심장병 무료시술=국립의료원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저소득 영세민을 대상으로 28일까지 심장병 무료시술 신청을 받는다. 신청절차는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 지역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국립의료원(02-2265-9100), 조계종 사회복지재단(02-723-5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두송복지관 무료 법률상담=두송종합사회복

지관은 27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박성기 변호사가 복지관을 방문해 각종 법률상담을 실시하며,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사전에 접수해야 한다. (051)265-9471

▲수의 판매=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내 어르신들이 작년 10월부터 공동작업으로 만든 수의를 판매한다. 판매 수익금은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수의 제작에 사용된다. (031)919-8677

강좌

▲선가귀감=선학원 중앙선원은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0분 선원 3층 대법당에서 선가귀감 강좌를 개최한다. 선원장 성해스님이 강의하며 교재는 <선가귀감> (서산대사 원저)이다. (02)732-3327

▲수도 열린강좌=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20분 조계사 제2문화

교육관 4층에서 수도열린강좌를 개최한다. 교육내용은 레크리에이션, 게임, 종이접기, 법회운영 등이며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이상훈, 장명문, 김재성, 법륜스님이 강의한다. (02)738-7860

▲불교사상강좌=한국불교연구원은 26~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구도회 법당에서 불교사상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동국대 정병조 교수가 ‘불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의한다. (02)3411-6167

모집

▲불교복지전문가 과정=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사회복지분야에서 활동할 전문 불교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3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년과정의 전문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 복지재단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수강생들

은 이론 교육과정과 자원봉사시 필요한 실무특강교육을 받게 된다. (02)723-5101

▲작은학교 교사=남원 실상사는 중등과정 대안학교인 작은학교에서 근무할 영어·생물 교사를 모집한다. 대졸이상의 학력소지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063)636-3369

▲참선 기초반=부산불교교육원은 3월 1일부터 6개월과정으로 진행될 참선 기초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두차례 실시되며 성재도 원장이 강의한다. (051)466-4080

이전

▲불교인권위원회(공동위원장 진관스님)는 24일 안국동 하나은행 근처 단독 주택으로 이전한다. 전화번호는 (02)734-6401 그대로다.

새해맞이 삼사성지순례 및 도서사 청운당 무차선원 제 2회 단기출가 모집

신사년 새해를 맞아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서사에서서는 불자로서의 신심을 새롭게 다지고 설레이던 초발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 일시 : 3월 3일 오후 7시 30분 ■ 동참금 : 4만원

도서사는 지난 1960년대 청담큰스님과 성철, 서용, 서암큰스님과 해인사 방장 법전스님께서 함께 용맹정진하신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큰스님들이 용맹정진하신 선의 기풍을 이어받아 도서사 시민선방 청운당 무차선원에서 참나를 찾아 떠나보십시오.

▷ 일시 : 3월 8일 ~ 4월 8일(음력 2월 14일 ~ 3월 15일)

▷ 동참금 : 십만원

▷ 문의 : 도서사 종무소 02) 993-3161~3

대한불교 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서사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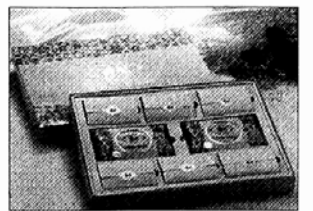
이 향비를 신권현(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아용성분의 성분이 신권현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생식세포 음식을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뱃속을 통해 모체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현(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하여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탈락현상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가 두통까지 걸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사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권현)에 찌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편과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피부와 혈액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빨리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전국 대리점 모집 중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 755-9821



매달리는 증상에 (○) 미시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위축이 있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땀이 많이 났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었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활력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비어있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번개가 심한 편이다
- 18 당뇨나 감성으로 고통을 당한다

※1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